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 2023. 8. 14.(월) 14:00

국가·국민·지자체가 함께 개발·활용하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수립

- 추경호 부총리,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
- 민간주도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
- 11.5조원의 최대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
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. 14.(월) 14:00 정부세종청사에서 「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」를 주재하여 ①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(기재부), ②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(국방부) 등을 논의했습니다.

【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(안) 】

추경호 부총리는 2024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4대 정책방향* 및 각 방향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.

- * ①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, ②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,
③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, ④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

추경호 부총리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¹⁾ 하여 국민·지자체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,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(Fast-track)을 신설²⁾ 하는 등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1) (일반국민, 3천만원 이상) 現 3년 → 改 5년, (지자체) 現 5년 → 改 10년으로 연장
2) ①캠코內 매각지원팀(가칭) 신설, ②온비드에 지역·면적별 매각대상 목록 공개 등

또한, 전 세계에 흥행 중인 K-콘텐츠(영화·드라마 등)¹⁾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²⁾를 구축하고, 모바일앱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·시간 단위까지 활용³⁾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- 1) 예) 舊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'더프리즌', 드라마 '슬기로운감빵생활' 등 촬영
2) 지역별 촬영지 선정 및 사진·영상DB를 구축하고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('24년)
3) 現 법령상 기간 제한은 없으나, '23년 전체 대부계약(22.4만건)중 99.97%가 6개월 이상 계약

한편, 민간에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¹⁾하고, 외교부와 협력하여 해외 거점도시에 재외공관·공공기관 사무소·기업 전시관 등이 결합된 해외 복합공관²⁾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격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.

- 1」 대부기간 연장(30→50년),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 도입(現 재산가액 연동) 등 추진
 2」 예) 駐워싱턴 스웨덴 대사관(대사관+전시공연시설+기업), 駐뉴욕 터키 총영사관(영사관+문화시설+민간사무실+아파트), 駐호치민 독일 총영사관(영사관+문화원+전시시설+기업)

아울러,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¹ 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, 지역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²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- 1」 예) 저활용 치안센터를 대부하여 카페 창업에 활용한 사례(충북 청주시 소재)
 2」 年2회 '찾아가는 지자체 설명회' 및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(기재부 2차관) 개최

끝으로,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대상 여부, 관리주체,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·공유재산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.

금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「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

【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(안) 】

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대구시 동구 소재 군 공항을 대구시 군위군·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'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(안)'을 확정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.

※ (별첨) 1. 부총리 모두발언

2. 「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」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동오 (044-215-51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성 (044-215-5151)
	국유재산조정과	책임자	과 장	정동영 (044-215-5250)
		담당자	사무관	조종연 (044-215-5251)
	국유재산협력과	책임자	과 장	임재정 (044-215-516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환 (044-215-5161)
	출자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장훈 (044-215-51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우 (044-215-5175)

별첨 1

경제부총리 모두발언('23. 8. 14일)

□ 지금부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[윤석열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]

□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1,000조원을 넘어
현재 1,300조원 규모입니다.

○ 그러나, 그동안 국유재산 정책은,
행정목적 달성과 유지·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,
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와 기대에
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.

□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해,
민간의 역량 강화와 경제의 역동성을
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.

○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 「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 매각·활용
활성화 방안('22.8.8일)」을 수립하여,

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
유휴·저활용 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
적극 개발·매각하고,
국유재산총조사*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쏠부처 재산 관리
실태 점검과 함께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.

* 토지, 건물 등 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('23.2월~, 12월 종료 예정)

○ 그 결과, 지난해 유휴·저활용 재산을 지자체·민간 등에
전년대비 19% 증가한 2조 1천억원을 매각하였습니다.

이를 통해 국토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
국민의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[**안건1**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(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)]

□ '24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

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·개발하는 데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❶ 먼저 국민의 국유재산 매입·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확대*하여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,

* (일반국민, 3천만원 이상) 現 3년 → 改 5년, (지자체) 現 5년 → 改 10년으로 연장

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, 지자체, 기업 등 각 수요자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(Fast-track)을 도입하겠습니다.

* 지역별·면적별 매각목록 온비드 공개, 캠퍼스 내 매각지원팀의 신속 지원

□ ❷ 또한, 국유재산을 민간의 창의가 결합되고 효율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하겠습니다.

-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참여 개발*을 통해,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·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모델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대부기간 연장(現 30 → 改 50년),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 도입(現 재산가액 연동) 등 추진

** 예) 국내(여의도 IFC), 해외(싱가포르 마리나 베이)

- 해외소재 국유재산의 활용·개발 방식도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외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 재외공관·문화원·
공기업 해외사무소·주요 기업 전시관 등이 한 건물에
입주하는 복합공관*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* 예) 駐워싱턴 스웨덴 대사관(대사관+전시공연시설+기업), 駐뉴욕 터키 총영사관(영사관+문화
시설+민간사무실+아파트), 駐호치민 독일 총영사관(영사관+문화원+전시시설+기업)

□ ㉓아울러,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
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국민들께서 국·공유재산의 활용 현황*을
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·공유재산
연계시스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겠습니다.

* 국·공유재산에 대해 권역별, 개별 재산별 매각대상 여부, 관리주체, 용도, 활용현황,
재산가액 등을 동시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·연계 추진

○ 이와 함께,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*하여
국유재산을 영화·드라마 등의 제작 장소로 제공**함으로써
K-콘텐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* 지역별 촬영지 선정 및 사진·영상DB 구축 →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('24년)

** 예) 舊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'더프리즌', 드라마 '슬기로운감빵생활' 등 촬영

○ 또한, 모바일앱 등 플랫폼 개발을 통해
국민 누구나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을 일 단위,
시간 단위까지도 임차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

[안건²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]

□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
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심의·의결합니다.

○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은
금년 4월 국회에서 의결한 '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'에
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,

-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·경북 지역 발전을
동시에 달성하면서
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
중요한 사업입니다.
-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
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되며,
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
11조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,
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
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,
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
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
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[마무리 말씀]

- 정부는
국유재산을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
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
확고한 원칙하에,
-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
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
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.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
별첨 2

「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(안)」 주요 내용

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**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**



민간이
적극 활용하는
국유재산

- ▶ 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 **매각 활성화** 지속 추진
- ▶ '국유재산 총조사'로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발굴 확대
- ▶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**편의증진**을 위한 제도개선
- ▶ K-콘텐츠 지원 등을 위한 **신속 대부 플랫폼** 구축

민간과
함께하는
국유재산 개발

- ▶ 장기대부형 **민간참여** 개발 본격 추진
- ▶ 토지위탁개발 사업 확대
- ▶ 다양한 유형의 **개발사업** 발굴
- ▶ 해외 국유재산 **확충** 및 거점개발 착수

국가정책과
지역발전을
뒷받침하는
국유재산 활용

- ▶ 창업·주거 등 **미래세대 맞춤형** 국유재산 개발
- ▶ 국유재산을 **지자체와 상생 활용**
- ▶ 국가·지자체간 **상호점유 해소**
- ▶ 2050 **탄소중립** 지원

관리체계
혁신을 통한
재산가치 증대

- ▶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위한 **거버넌스** 구축
- ▶ 국·공유재산 **정보 통합 공개** 추진
- ▶ 국유재산 관리 **사각지대 해소**
- ▶ **국유재산특례** 운용 체계화

①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

- **(매입지원 강화)** 現 정부 매각목표(16조원+α)의 차질 없는 달성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각 수요자별 지원 강화
 - * '22년은 21,239억원을 매각하여 '21년 17,838억원 대비 **19% 증가**
 -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, 대금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기간 확대*, 매각대상 재산 온라인 공개 추진
 - * (일반국민, 3천만원 이상) 現 3년 → 改 5년, (지자체) 現 5년 → 改 10년
- **(K-콘텐츠 제작장소 지원)** 드라마·영화 등 K-콘텐츠 지원*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하여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
 - * 예) 舊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'더프리존', 드라마 '슬기로운감빵생활' 등 촬영
 - 지역별 촬영지 선정 및 사진·영상 DB를 구축(캠코, '24末)하고, 모바일앱 등 플랫폼을 개발하여 일반 국민의 활용도 지원('25년)

②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

- **(장기대부형 개발)**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* 및 시범사업** 추진
 - * 대부기간 연장(30→50년), 매출액 연동 대부로 산정방식 도입(現 재산가액 연동) 등
 - ** 예) 부산 강동지구內 복합물류센터, 송파CT 클러스터內 업무·상업·창업지원 시설
- **(해외 국유재산 복합개발)** 해외* 복합공관 설치(공관+공공기관 사무소 등)를 시범 실시하여 국격 제고 및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 제공
 - * 例) 駐워싱턴 스웨덴 대사관(대사관+전시공연시설+기업), 駐뉴욕 터키 총영사관(영사관+문화시설+민간사무실+아파트), 駐호치민 독일 총영사관(영사관+문화원+전시시설+기업) 등

③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

- **(청년맞춤형 개발)**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창업·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
 - 청년창업허브* 추가 조성, 청년창업인 대상 미활용 공공청사 대부, 창업·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

* 시세 대비 최대 30% 저렴하게 창업공간 대부(서울·부산 旣 조성 / 대전·대구 협의中)

- **(지자체 협업)**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고, 지자체에 정보제공,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 기회 확대*

* 국가-지자체간 고위급 협력을 위한 국유재산 협의회를 정례화(年 2회, 2차관)

- 또한 국가·지자체간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교환도 추진
(‘23.下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와 약 300억원 규모의 국·공유재산 교환 추진)

④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 증대

- **(국·공유재산 정보 통합 공개)** ‘e나라재산’*과 ‘공유재산 포털’**을 연계(‘25년)하여 국·공유재산 통합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

* 지역별 국유 일반·행정재산의 정보(지도/용도/주소/면적/지목/담당자 등) 공개

**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필지, 대부·매각가능 정보 공개 시스템(‘24년, 행안부)

- e나라재산의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추진(‘24년)

- **(국유재산 특례 체계화)** 국유재산 특례* 타당성 평가(존치평가) 기준을 마련(∼‘24년)**하고,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 최초 실시(‘25년)

*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상사용 등 특례운영(例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대부료 면제)

** 시행령 개정, 지침 제정을 통해 존치평가 주체·절차·사후조치 등 구체적 사항 규정